

위기의 불펜, 그래도 희망은 싹튼다

KIA 마운드 '새 힘' 대줄 2년차 박진태

임창용 부진 도미노... 불펜 평균자책점 전반기 최하위 속

2경기 선발 눈도장... 생애 첫 세이브 "필요한 선수 될 것"

고졸 2년차 남재현도 씩씩한 투구 "좋은 경험 쌓겠다"

위기의 불펜에도 '미래의 희망'이 싹을 틔우고 있다.

잘 나가는 KIA 타이거즈의 고민은 불펜이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서 위태로운 전반기가 흘러갔다. 지난 시즌 뒷문을 책임졌던 임창용의 부진이 길어지면서 여기저기 빈 틈이 생겼고, 불펜진의 평균자책점은 전반기 내내 최하위 자리를 맴돌았다.

연일 기록 행진을 펼친 타선과 비교해 한참 더딘 걸음이지만, 불펜에도 미래를 기대케 하는 미래의 얼굴이 있다. 대졸 신인인 사이드업 박진태와 2년 차 남재현.

박진태는 최근 중요한 순간에 등장해 씩씩하게 아웃카운트를 채워가고 있다. 선발로 나온 두 경기에서 공격적인 피칭으로 어필을 했던 박진태는 지난 6월 NC전부터 불펜에서 등장하게 역할을 하고 있다.

6월 23일부터 9경기에서 9.1이닝을 던지며 3실점을 한 박진태는 6피안타를 허용했고 5개의 삼진을 잡았다. 사사구는 3개로 류는 등 좋은 성적을 내고 있다.

지난 4일에는 SK와의 원정경기에서 15-3으로 앞서 7회 마운드에 올라 3이닝을 책임지면서 생애 첫 세이브도 수확했다. 박진태 야구 기록관에 써진 첫 기록이다.

박진태는 "던지면서 세이브라는 생각도 못 했었다. 원래는 1이닝을 맡아서 전력으로 던졌는데 3이닝을 하게 됐다. 나중에 세이브라는 걸 알았다"며 "세이브라서 좋기는 하지만 박병의 승부에서 이룬 것이 아니라서 담담하다. 지금은 내 역할이 아니지만 나중에 중요한 상황에서 세이브를 해보고 싶다"고 웃었다.

불펜의 새 힘으로 역할을 하고 있지만 '루키'의 데뷔전은 쓸쓸했다.

4월 11일 두산과의 원정경기가 박진태의 생애 첫 등판 경기다. 그러나 이미 기울어진 흐름 탓에 박수받지 못한 등장이었다. 4-8로 뒤진 4회 2사 1-3루에서 투입된 박진태는 불꽃은 두산 타자들을 막느라 진땀을 흘렸다. 그리고 2.1이닝 10피안타 1볼넷 2탈삼진 5실점이라는 기록을 남긴 채 루키의 첫 1군 나들이가 끝이 났다.

두 달의 시간이 흘러 6월 8일 다시 1군 마운드를 밟은 그는 점점 자신의 입지를 넓혀가고 있다.

박진태는 "첫 등판에서 힘든 경기를 했지만 지금 돌아보면 좋은 경험이 된 것 같다"며 "신인답게 하는 게 내 목표다. 아무 것도 모를 때가 더 무섭다고 한다. 아직은 잘 모르기 때문에 겁 없이 자신 있게 경기를 하겠다. 이거는 지든, 어떤 상황에서든 팀이 요구하는 것을 하면서 팀에 필요한 선수가 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역시 신인다운 씩씩함으로 사람들을 눈길을 끌었던 고졸 2년 차 남재현도 두 번째 어필 무대를 준비하고 있다. 지난 6월 2일 삼성과의 원정경기에서 프로데뷔전을 치렀던 그는 4일 두 번째 등판에 나선 뒤 엔트리에서 말소됐다.

신인다운 패기로 기대를 모았지만 오른쪽 어깨근육이 찢어지면서 아쉽게 다음을 기약해야 했다. 그리고 남재현은 지난 9일 다시 1군 부름을 받으면서 도전의 시간을 맞게 됐다.

남재현은 "경기 나가기 직전 불펜 피칭 때 마지막 공을 던지고 통증이 왔었다. 답이 온 거라고 생각했는데 근육이 찢어졌다고 해서 속상했다. 다시 기회를 얻었는데 이번에는 여유롭게 경기를 치르면서 좋은 경험을 하고 싶다"고 언급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지난달 18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2017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와 LG 트윈스 경기에 선발 출전한 KIA 박진태가 역투하고 있다. <KIA 타이거즈 제공>

임기영 "운동이 강하게 크라고 주자 남겼죠"

폭염경보 속 신종길 "이 날씨가 말이 되나요"

덕아웃 T 특독

▲강하게 크라고 주자 남겨두고 내려왔어요

'각별한 친구' 임기영(왼쪽)과 김윤동(오른쪽)이다. 지난 11일 NC와의 홈경기를 통해서 마운드에서 재회한 두 사람. 이날 폐렴으로 쉬어갔던 임기영이 7-3으로 앞선 7회 2사1루에 등판해 복귀전을 치렀고, 김윤동은 친구에 이어 9회 2사 1-2루에서 마운드에 올랐다. 결과는 해피엔딩. 임기영이 복귀 후 첫 승부에서 모창민에게 2루타를 맞은 뒤 오심으로 득점을 허용했지만 8회를 삼자범퇴로 막는 등 성공적인 복귀전을 치렀다. 그리고 김윤동은 등판하자마자 불넷을 내주며 2사 만루 위기를 맞았지만 박석민을 땅볼로 처리하면서 친구의 평균자책점과 팀 승리를 지키며 시즌 10번째 세이브를 기록했다.

12일 훈련이 끝난 뒤 임기영은 "친구가 마음이 약해서 강하게 크라고 주자를 남겨 놓고 내려왔다. 잘 막아줘서 커피를 사줬다"고 농담을 했다. 임기영의 이야기에 "너무 싸게 끊어준 것 같다"고 웃은 김윤동은 "마무리 투수로 10세이브를 한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됐다. 앞으로는 더 좋은 모습으로 마운드를 지키고 싶다"며 각오를 밝혔다.

▲이 날씨가 말이 되나요

한숨이 절로 나오는 날씨였다. NC와의 시즌 11차전이 열린 12일 광주에는 폭염 경보가 내려졌다. 이날 낮 기온이 34도까지 오르는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훈련을 하는 선수들은 땀 범벅이 됐다. "오늘 날씨 장난 아니다"는 나자완의 경고 속



에 훈련을 하기 위해 그라운드로 향했던 신종길은 잠시 후 "이 날씨가 말이 되나요?"라는 말과 함께 고개를 저었다.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분위기더라고요

KIA 팬들의 뜨거운 열정에 신바람이 난 '토타지' 이명기다. 이명기는 앞선 잠실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이름을 연호해주는 KIA 팬들의 열정적인 응원에 모자를 벗고 인사를 하며 응답을 했었다. 이명기는 당시 상황에 대해 "(인사를)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열정적인 분위기였다(웃음). 팬들 정말 대단하다. 야구는 저도 응원 안 진다는 뜻이 응원을 해주신다"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한편 화요일이었던 11일 1만 3847명이 챔피언스필드를 찾은 등 더위에 도 팬들의 발길이 이어지면서 뜨거운 응원 열기는 계속됐다. /김여울기자 wool@

EPL 여름 이적시장 '핫하네'

10일만에 8천억원 지출...구단들 '대어' 잡으려 지갑 활짝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구단들이 이번 여름 이적시장에서 불과 10일 만에 8000억원이 넘는 금액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영국 매체 데일리 메일에 따르면 EPL 구단은 이적시장이 열린 지 10일 만에 5억7100만 파운드(8434억원)를 사용했다. 여름 이적시장은 지난 1일 문을 열었으며, 내달 31일 문을 닫는다.

불과 10일 만에 쓴 지출액만으로도 역대 이적시장에서 쓴 금액으로는 5번째에 해당한다.

1년 전에는 11억6500만 파운드(1조 7208억원)로 이적시장에 새 역사를 쓴 바

있다. 사상 처음 10억 파운드를 넘은 것이다. 2015년에는 8억7000만 파운드(1조 2851억원), 2014년에는 8억3500만 파운드(1조 2334억원), 2013년에는 6억3000만 파운드(9306억원)를 사용했다.

매년 이적시장에서 구단들의 씀씀이가 커지면서 올해에도 지난해 기록을 갱신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에버턴에서 로멜루 루카쿠를 데려오는데 7500만 파운드(1107억원)를 썼다. 아스널은 알렉산드르 라카제트 영입에 5260만 파운드(776억원)를 들었다.

다른 구단들은 아직 '대어'를 잡기 위

한 물밑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첼시는 알바로 모라타(레알 마드리드) 영입을 위해 7000만 파운드(1032억원)를 준비하고 있고, 티에무에 바카요코(AS 모나코)를 데려오기 위해 4000만 파운드(590억원)를 장전했다. 맨체스터 시티는 아직 큰 건은 없지만, 베르나르도 시우바(AS모나코)와 벤피카 골키퍼 에데르손 영입에 7800만 파운드(1151억원)를 준비 중이다.

토트넘과 스토크 시티, 크리스털 팰리스 등 아직 스타트를 끊지 않은 구단들도 많아 올해 이적시장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광주 FC 송승민 베스트 11

K리그 클래식 19R



광주 FC의 '캡틴' 송승민이 K리그 클래식 19라운드 베스트 11의 영예를 안았다. 프로축구연맹이 12일 K리그 클래식

19라운드 경기를 평가해 베스트 11을 발표했다.

제주 유나이티드와의 경기에서 결승골을 터트린 수원 삼성의 김민우가 MVP로 선정됐고, 서울전 승리를 이끈 광주 '캡틴' 송승민은 베스트 11 공격수 부문에 이름을 올렸다.

송승민은 지난 9일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FC 서울과의 경기에서 전반 37분 주현우의 패스를 받아 선제골을 기록했다. 이후 김영민, 이우혁의 골이 이어지면서 광주는 서울을 상대로 3-2 승리를 거두고 9경기 연속 무승 부진에서 탈출했다. 2269일 만에 기록된 서울전 승리이기도 했다.

또 5골을 주고받은 이 경기는 19라운드 베스트 매치로 선정됐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가자! 佛 월드컵으로

'평양 기적' 윤덕여 감독

女축구대표팀 2년 더 지휘

지난 4월 북한 평양에서 열린 2018 아시안컵 예선에서 북한을 제치고 본선 티켓을 따낸 윤덕여(56) 여자축구대표팀 감독이 연임에 성공하면서 2019 프랑스 여자 월드컵 진출을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대한축구협회 관계자는 12일 "윤덕여 감독이 지난 4월 기술위원회의 유임 추천에 따라 (협회의 재계약) 의사가 전달돼 계약 기간 등 계약 조건에 대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달로 2년 계약이 종료된 윤 감독은 2년 더 대표팀을 지휘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지난 2012년 12월 처음 여자 대표팀 사령탑에 오른 윤 감독은 내년 4월 요르단에서 열리는 아시안컵 본선에서 2019 프랑스 여자월드컵 출전권 획득에 도전할 수 있게 됐다.

윤 감독은 지난 4월 '평양 원정'으로 치러진 아시안컵 예선에서 아시아 최강인 북한과 1-1 무승부를 기록하며 골득실에서 북한을 앞서 아시안컵 본선 출전권을 따냈다.

그는 2015 캐나다 여자월드컵에서도 한국 축구 사상 처음으로 16강 진출을 이끌고 올해 6월까지 2년 계약 연장에 성공했다. /연합뉴스

UEFA 챔피언스리그

황희찬 데뷔골

국가대표 공격수 황희찬(21·잘츠부르크)이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에서 데뷔골을 터뜨렸다.

황희찬은 12일(한국시간) 몰타 파울라 하이버니언스 그라운드에서 열린 2016-2017시즌 UEFA 챔피언스리그 2차 예선 1차전 하이버니언스FC(몰타)와 경기에서 1-0으로 앞선 전반 35분 추가 골을 넣었다.

비록 예선이지만 황희찬이 UEFA 챔피언스리그에서 골을 넣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황희찬은 후반 25분 골브란센과 교체될 때까지 70분간 그라운드를 누볐다.

그는 지난 시즌 최고의 한 해를 보냈다. 오스트리아 분데스리가에서 16골을 넣어 세계 빅리그의 관심을 한몸에 받았다.

지난달엔 도하에서 열린 2018 러시아월드컵 아시아최종예선 카타르와 경기에서 대표팀 데뷔 골을 넣기도 했다.

그는 프리시즌이지만 몸 상태를 끌어올리며 러시아월드컵 이란-우즈베키스탄과 마지막 두 경기 전장을 밟았다. /연합뉴스